

‘환상의 올림픽’, 다시? 현대 일본과 올림픽의 정치학

김효진

2020년 3월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식적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결정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3월 23일 공식적으로 IOC에 요청한 결과로, 2021년 여름까지는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따르긴 했지만 원래 개최 예정일이었던 7월 24일이 지난 지금조차 여전히 2020 도쿄 올림픽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긴급사태 선언 및 해외입국자 제한 조치와 함께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월 22일 전국에서 700명을 넘기는 등, 일본 정부가 희망했던 사태의 완만한 진정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한, 2021년 7월 23일을 예정하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 또한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지가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콤팩트화’ 및 무관중 경기 진행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¹ 엄중한 상황

김효진(金孝眞)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조교수를 거쳤다.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 한일문화 교류와 세계화 속의 문화민족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BL진화론: 보이즈러브가 사회를 움직인다』(역서, 2018), 『흔들리는 공동체, 다시 찾는 '일본'』(공편저, 2019) 등이, 주요 논문으로 「2019, 「뮤지엄 이후의 뮤지엄: 일본 만화뮤지엄의 사례와 전망」, (2019),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사이에서: 요시나가 후미 만화의 게이 표상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이 지속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80년 전 이른바 ‘환상의 올림픽’ (幻のオリンピック)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20 도쿄 올림픽은 일본이 개최하는 두 번째 올림픽이지만, 유치에는 성공했으나 결국 개최되지 못한 1940년 도쿄 올림픽을 고려하면 계획상으로는 세 번째인 도쿄 올림픽이기도 하다.²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중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지만, 1940년 당시에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역사의 우연이 만들어 내는 필연을 떠올리게 한다. 2020 도쿄 올림픽 유치 당시 일어났던 많은 비판과 반대³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돌이켜보면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올림픽은 일종의 ‘문명화’ 혹은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선언하는 효과가 있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패전에서 벗어나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일본의 위상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세계의 열강으로서 도약한 중국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개최국 내에서 올림픽의 효과에 대한 회의 및 국가 주도의 거대 이벤트가 내포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들은 모두 지극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각각의 개최국에서 ‘최초의’ 올림픽들은 여러 의미에서 개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떤 계기로서 작용하였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1 松永裕司, 「東京五輪は果たして2021年に開催されるのか 新型コロナとスポンサー問題」 2020年 6月 22日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35305/3/1/1>.

2 물론 이때 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을 가리킨다. 삿포로 동계올림픽(1972)과 나가노 동계올림픽(1998)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이 보통 개최국의 수도 혹은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라는 점은 중앙과 지방의 역학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3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출판된 小笠原博毅·山本敦久 編, 『反東京オリンピック宣言』, 航思社, 2016이다. 이 책은 16명의 지식인, 연구자들이 2020 도쿄 올림픽을 비판하는 논문을 모은 것으로 1981년에 출판된 『反オリンピック宣言: その神話と犯罪性をつく』를 잇는 일본의 대표적인 올림픽 비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0 도쿄 올림픽은 일본에, 동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문명화’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치러진 국가적 이벤트로서 올림픽이 이미 동아시아에서 한 번의 사이클을 이루고 종료된 지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메가스포츠 이벤트’, ‘부흥올림픽’, 그리고 도시 재생 등이었다. 이는 우리가 기존의 올림픽에 대해 알고 있는 올림픽의 의미, 즉 이를 주최하는 국가와 도시, 지역사회에서 올림픽이 갖는 의미가, 그리고 나아가 스포츠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선 메가스포츠 이벤트(Mega Sports Event)라는 관점에서 2020 도쿄 올림픽을 살펴보자. 이때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비정기 또는 특정 기간에 개최되어 다수의 방문자와 미디어 노출을 동반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본과 코스트가 투하되는 스포츠 이벤트”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UN은 올림픽에 대해 “새롭게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의무”⁵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IOC 또한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이 개발 일변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 대회로 인해 환경적 손실은 없었는지,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기울였는지 등 대회가 끝난 후에도 다방면에서 책임에 답해야 한다.”⁶ 2020 도쿄 올림픽 또한 이런 올림픽의 레거시(legacy)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도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⁷

4 Martin Müller가 제시한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정의로 「メガスポーツイベントによる社会効果: 東京2020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おける検証」, 『スポーツマネジメント研究』, 2015; 押見大地 2020, 日本スポーツマネジメント学会, 2쪽에서 재인용.

5 「[기고]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꿈꾼다!」, <http://unglobalcompact.kr/library/media-report/?mod=document&uid=170>(최종 검색일: 2017. 7. 20.)

6 「(사회책임)올림픽은 끝났지만 평창은 지속된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2418>(최종 검색일: 2018. 3. 19.)

7 예를 들어 中川雅之는 「メガイイベント戦略と都市更新」(2014)에서 1960년대 도쿄 올림픽 당시 건설한

한편 ‘부흥올림픽’은 2016년에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후, 2020 올림픽 유치를 시도하면서 일본이 내세운 이념이기도 하다. 3.11 동일본대진재로 인한 재해 피해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 및 올림픽 경기 시행 등을 통해 재해를 극복하는 ‘부흥’의 이미지를 강조한 전략으로 2020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계획된 세 차례의 도쿄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전략이었다.

여기에서 수도 도쿄의 올림픽 개최의 의미를 재고하면 IOC의 이념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그것은 항상 무엇인가의 국민적 흥사에서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격화로 인해 환상의 대회가 된 1940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체육협회의 제안이 아니라 도쿄 시장이 간토대진재(1923년)의 부흥을 촉진하고 ‘제도’(帝都)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회로서 제안한 것이었다. “아시아권 최초의 개최”라는 의의가 강조된 1964년 도쿄 올림픽도 국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실된 일본의 국제적 현존(presence)을 회복하는 기회로서 의미지어졌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가 IOC에서 인정받은 것은 동일본대진재(2011년) 피해에서 부흥이라는 의의가 평가된 부분이 적지 않다.⁸

그러나 1964 도쿄 올림픽이 그 실상이 어떠했을지라도 일본사회 전체를 경제발전과 근대화라는 목표에 포섭하는 데 성공한 반면, 2020 도쿄 올림픽이 내거는 ‘부흥’의 실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올림픽 경기 개최 경비에 동일본대진재부흥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관련 지역에서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오히려 부흥이

인프라가 노후한 상황에서 도쿄는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대규모의 인프라 정비(도시정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 西山哲郎, 「範例的メディアイベントとしての2020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大会の行方について」『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86,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16, 5쪽.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등⁹ ‘부흥올림픽’이라는 이념은 올림픽 준비가 상당부분 완료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인 것으로 보인다.

즉 2020 도쿄 올림픽은 1964 도쿄 올림픽 때와는 달리, 일본사회 내부의 모순과 균열로 인해 이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국가적 의의나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상태에서 개최되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1964 도쿄 올림픽이 도쿄보다는 ‘일본’의 올림픽이었다면, 2020 도쿄 올림픽은 일본의 올림픽이라기보다는 ‘도쿄’의 올림픽이다. 3.11 동일본대진재 당시의 피해로부터 여전히 복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를 도쿄 올림픽의 일부로서 포괄하고자 하는—이를 통해 ‘국가’의 올림픽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움직임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측의 노력이지만, 실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즉 호스트 도시로서 도쿄의 재생을 둘러 싸고 있는 요시미 슌야(吉見俊哉)¹⁰가 소개하고 있는 다카야마 에이카(高山英華)의 일본의 도시계획에 대한 발언은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일본인은 이런 게(축제) 없으면 예산도 힘도 내지 않으니까.’라는 건 내가 어딘가에 썼지. 그런 건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서는 괜찮지만 이런 수단만으로는 물건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건 곤란해. 그래서 생활환경 같은 게 늦어지는 거지… (일본의 지역개발은) 플러스 알파만 돼서 (웃음) 기반이 되고 있는 건, 역으로 말하자면, 다른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하고, 기반이 아닌 쪽으로 총예산이 가 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나 그 정도로 결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일본인이라는 건. 정부도.

9 龜山有希,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と2020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 『オリンピックスポーツ文化研究』No. 2, 日本体育大学オリンピックスポーツ文化研究所, 2017, 56쪽.

10 吉見俊哉, 「ポスト戦争としてのオリンピック 1964年東京大会を再考する」,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86,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15, 34~35쪽.

다카야마의 분석은 1964 도쿄 올림픽에 대한 것이지만 계획까지 포함하여 3회의 도쿄 올림픽 전반에 적용되는 날카로운 것이다. 특히 그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야말로 왜 많은 경우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실제 호스트 도시나 관련 지역에서 재정 파탄이나 지역공동체 와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계속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상시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의식도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작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은 부가적인 요소로만 취급되고 이벤트 자체에 총예산이 투입되어 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것이 일본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부흥올림픽'이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정작 후쿠시마가 사라져 버리는 모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만 어떤 움직임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열광하고 기대하는 것 또한 단순히 이들이 속고 있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즉 올림픽에 대한 비판은 이런 사람들의 열광과 기대에 담긴 의미를 함께 분석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요시미는 올림픽을 분석하는 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올림픽의 비판적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축제=올림픽'이 내포한 역사적 구조를 한편에서는 이 드라마를 연기한 선수들의 인생과 심정, 그들의 선택에 내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감동적인 스펙터클로서 수용하고 소비한 대중의 무의식에도 들어가면서도, 전체가 어떠한 공간과 미디어의 전략적, 지정학적 구조에 의해 규정(제한)되었는가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이다.¹¹

요시미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23호의 특집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11 吉見俊哉, 「ポスト戦争としてのオリンピック 1964年東京大会を再考する」, 2015, 36쪽.

중심으로, 일본사회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서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다시’ 시행하는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근현대 일본에서 올림픽이 가졌던 의미와 위상을 분석하여 2020년 올림픽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피고, 2) 2020년 올림픽이 실제로 어떻게 구상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시계획과 사회문화정책과의 관련성 위에서 논의하며, 3) 중앙의 올림픽인 도쿄 올림픽과는 달리, 지방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사례를 고찰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학이 올림픽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논하고, 4) 2020년대 이후 일본사회를 전망하는 데 있어 올림픽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찬반논란보다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에 중점을 둔 논의로 특집을 구성하고자 했다. 이는 일본의 올림픽에 대한 연구경향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23호의 올림픽 특집을 준비하는 과정은 일본에서 올림픽 연구가 얼마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당시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사회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한국에서 올림픽에 대한 연구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지배와 피지배라는 구도가 일반적인 인상이다.

한편, 세 번의 올림픽 계획이라는 역사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 체육계에서는 이미 1960년경부터 올림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비판적인 논조의 관련 연구도 선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올림픽 연구를 198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춰 리뷰한 나루세 아쓰시(成瀬厚)¹²는 테마별로 나누면 총 8분야, 즉 올림픽총론/본질론, 경제효과분석, 관광연구, 물리적 연구, 사회·문화적 연구, 심리적 연구, 정치적 연

12 成瀬厚, 「日本におけるオリンピック研究」, 『コミュニケーション科学』 51, 東京経済大学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20.

구, 지리적 연구가 있다고 정리한다. 물론 이는 전전(戰前)부터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의 제국이었던 일본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올림픽에 대해 이 정도의 폭넓고 다양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2020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일본 내의 찬반논의 또한 이런 충실한 학문적 베이스를 인식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실감하며, 한국의 관련 논의에도 이번 특집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3호 특집의 첫 논문은 현실 정치, 특히 아베 총리와 올림픽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석정의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의 올림픽: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그리고 올림픽 연기」이다.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 문제나 그 외 관련된 정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베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적인 규모의 메가이벤트로서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윤석정은 실제 2020 도쿄 올림픽의 유치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아베 총리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당시 도쿄도 지사의 올림픽 유치 계획에 연루되었고, 일단 연루된 이후 일본 개헌 정국에 이를 이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밝힌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런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은 이제는 아베 총리의 정치 일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이 논문은, 일본 정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그리고 올림픽과 정치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김은혜의 「2020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재생의 역설: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퇴거」는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지, 도쿄에서 바라보는 올림픽을 논의하고 있다. 1964 도쿄 올림픽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현재 도쿄의 원형이 1964년에 만들어졌음을 상기한다면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20년, 도쿄를 다시 바꾸는 주요한 계기로서 도쿄 올림픽은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64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발전 대신 지속가능성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 도쿄 올림픽은 재생이나 보존이라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혜는 신국립경기장의 설계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런 강조점과는 달리 2020 도쿄 올림픽이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으로 기능한 결과 도쿄 도심의 공간적 변화와 거주민들의 퇴거를 가속화하는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앞의 두 논문이 2020 도쿄 올림픽을 현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김보경의 「도쿄 올림픽과 패전의 풍경: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와 새로운 대하드라마의 가능성」은 2020년과 1964년, 그리고 그 이전 1940년을 잇는 ‘기억’과 재현의 문제를 NHK 대하드라마 <이다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NHK 대하드라마와는 달리, 올림픽을 소재로 삼은 이다텐은 일본의 근대사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쿄 올림픽에 대한 홍보라는 측면과 함께, 그 내용이 역사 해석이나 재현에 관해 해외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근대 이전의 역사를 테마로 하는 기존 NHK 대하드라마의 시청자들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테마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외에서 모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이다텐>은 여러 과감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본사회의 올림픽을 둘러싼 ‘불편한’ 기억을 소환하고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성취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NHK 대하드라마가 기억하고 전승해 온 역사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근현대의 상당 부분을 배제해 왔으며, 시청자 대다수도 그 행위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갈릴 염려가 없는 먼 과거 인물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겨 왔다. 이 같은 대하드라마와 주 시청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축된 감상의 방식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이다텐>의 시도는, 비록 실패에 가까운 결과에 그쳤으나 새로운 대하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김보경의 분

석은 근현대사에 대한 일본의 재현에 대해 관습적인 비판보다 그 내부의 균열과 모순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2019년의 드라마에서 재현된 1964년의 올림픽, 그리고 1940년대의 기억을 분석하는 위의 논문을 다리로 삼아 이어지는 박세연의 「이미지의 올림픽: 1964 도쿄 올림픽의 디자인 프로젝트 다시보기」는 올림픽을 이미지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전후 부흥을 세계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디자인과 이미지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던 1964 도쿄 올림픽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이를 통해 어떤 일본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이는 단순히 일본적인 이미지의 강조로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로 이 당시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일본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일본적 모더니즘’을 목표로 삼았고, 그 결과가 혁신적인 올림픽 엠블럼과 포스터, 픽토그램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들은 전전의 디자인 문법을 선택적으로 전용하면서도, 당시의 목표 — 전후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 — 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세연의 결론이다.

특집논문의 마지막인 김희경의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다층적 국제화」는 세 차례의 도쿄 올림픽에서 벗어난 또 다른 올림픽,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올림픽인 동계올림픽을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계올림픽이 국가 주도의 개발이나 발전 프로젝트와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동계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소외된 지방에서 개최되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역학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특히 하계올림픽이 국가의 수도, 혹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데 반해 동계올림픽은 경기종목의 특성상 지방의 이슈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나가노 올림픽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 균등 발전보다는 오히려 중앙 중심성을 더 강화하고 지역 내부의 차이를 더 강화하였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지만, 글로벌한 맥락과 지역사회의 접촉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다른 양상 또한 관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특집논문에서는 올림픽을 정치와 사회, 대중문화와 이미지,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어떤 계기를 제공한 ‘이벤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의 문화정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연구적 해석이 여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스포츠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동시에 스포츠 또한 내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동하여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집기고〉로 소개하는 이타니 사토코(井谷聡子)의 「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 배제(Trans-Exclusion)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은 바로 그 스포츠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민감한 논쟁인 트랜스젠더 선수의 배제에 관한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최근 성소수자 정책이 점차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중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여자대학에서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입학을 허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전향적인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스포츠의 영역에서 강고한 트랜스젠더 배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일어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특히 MtF선수들에 대한 배척에 대해 이타니는 시스젠더 여성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배제의 흐름이 인종주의와 식민주의까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엘리트 스포츠에 출전하는 경우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엘리트 체육에 참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 나아가 교육 목적의 학교 체육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할 권리가 시스젠더 여성의 우승할 권리보다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이자 나아가 한국에서도 최근 부상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주요한 논쟁에 대해 이 특별기고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논쟁에 대한 주요한 레퍼런스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의 특집과 관련된 글들 이외에, 23호에는 세 편의 글이 실렸다. 편집자로서 행운이었던 것은 개별적으로 투고된 이 세 편의 논문 모두 직접

적으로 23호의 특집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을 학제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집 논문들을 이해할 때, 각각의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더 넓고 깊은 맥락을 연구논단의 논문과 특별기고가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특집기고, 특별기고와 연구논단 모두가 미리 계획한 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23호가 되었고, 그 점에서 편집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동시대 연구자들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특별기고인 마쓰타니 모토카즈(松谷基和)의 「2020년, 후쿠시마에서 코로나 재해를 생각한다」는 2020년 지금, 후쿠시마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다루고 있다. 동일본대진재가 가져온 복합재해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들을 둘러싼 ‘풍평피해’로 인해 고통 받았던 후쿠시마의 경험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둘러싼 사회적 차별과 풍평피해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이 마쓰타니의 지적이다. “원전사고로 인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열매가 그다지 튼실하지 않았다”는 깨달음(214쪽)을 통해 사회적 차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진행될 성화봉송과 올림픽 경기는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 피해의 기억과는 관계없이 ‘부흥’의 상징이 된 지역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제 지역의 고통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사다카네 히데유키(貞包英之)는 「도시의 냉각: 도쿄에게 헤이세이란 무엇이었을까?」에서 헤이세이라는 렌즈를 통해 도쿄라는 도시를 바라본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대적 분위기였던 일본에서 ‘도쿄론’은 에도 시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도시론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쿄를 소비사회화, 정보화의 최첨단으로 다루는 논의가 뒤를 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도쿄에 대한 담론은 ‘소실’되고 ‘냉각’되었다는 것이 사다카네의 시각이다. 그리고 지금, 2020년의 시점에서 도쿄에 대한 논의를 되돌아보면 바로 이런 도쿄에 대한 담론의 소실은 바로 도쿄의 침체에 기인하며, 이는 도쿄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도시로서 바라볼 필요성을, 그리고 그를 통해 동아시아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통찰을 통해 보이는 것은 도쿄가 과거와 달리 장소에 따라 분단되었으며, '공통의 장'이 소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많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국의 도시들도 결코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김계원의 「1960년대 일본의 고미술 수용과 감상의 변화: 『부인공론』(婦人公論)의 표지사진을 중심으로」가 23호의 마지막 논문이다. 이 논문은 기획 특집 논문들이 역사로서 참조하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린 시대로서 일본의 1960년대를 고미술과 여성잡지라는 사례를 통해 접근하도록 인도한다. 박세연의 논문이 1964년 올림픽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일본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조화되도록 기획되었는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면, 김계원은 '지성이 높은 계층의 여성'의 계몽잡지였던 『부인공론』이 1960년대 고미술을 '교양'으로서 접근하면서 진취적 여성성을 그려 내었고, 이후 고미술 여행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적인 것을 찾는 진보적 여성관객이라는 상반된 경향성은 사실상 올림픽의 이미지와도 그 경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일본의 디자인과 이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귀중한 관점을 제공한다.

여전히 예단을 불허하는 코로나19 사태와 강제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경색이라는 어려운 연구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논문을 기고해 주신 특집 집필자분들, 그리고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특집을 이해하는 보다 폭넓은 맥락을 제공해 주신 연구논단과 특집기고, 특별기고 투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진행 중인 이슈이자 2020년대 일본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